

“미혼모도 아이 위해 열심히 사는 ‘엄마’입니다”

광주 국제교류센터 특강 미혼모 지킴이 ‘인트리’ 최형숙 대표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왜 미혼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미혼모가 100명이면 미혼부도 100명이 있게 마련인데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주)는 17일 저녁 전일빌딩에서 ‘국제이해강좌’를 열었다. 지난 3월 시작해 네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강연에는 ‘사람이 열리는 나무 인트리(intree)’ 최형숙(여·41) 대표가 초청돼 ‘나는 한국의 미혼모다’는 주제로 시민과 대학생을 만났다. 그동안 한국미혼모가족회 대표정책팀장 등을 맡았던 최 대표는 지난 7월부터 미혼모들을 위한 모임인 ‘인트리’를 준비해 오는 2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평범한 헤어디자이너로 살던 최 대표의 삶이 달라

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와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헤어졌다. 다음해 그녀는 ‘혼자’가 됐지만 ‘혼자’가 아니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엄마’가 된 것이다.

“친구들은 물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이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엄마가 되기를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했던 게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포기를 중용했다. 매순간 갈림길에 놓여 갈갈질광하던 그녀를 붙잡은 것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작고 여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보며 ‘생명’을 발견했다. 엄마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으나 주변에서는 매몰찬 반응뿐이었다.

엄마가 되려는 그녀가 찾은 곳은 가정이 아니라 입양기관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엄마 대신 입양을 추천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

려면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미혼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출산이 곧 이별을 의미했기에 어떻게든 낳고 싶었다. 밤 11시, 양수가 터질 때까지 엄마는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이와 헤어지기 싫었다’고 답했다. 새벽 2시47분. 엄마는 처음으로 뱃속에 있던 아이 얼굴을 봤다. ‘아기가 미안하다. 이제 그만 가’ 오전 11시, 엄마가 입양시설에 떠나 보내기 전 건조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를 보겠다는 사실감에 병원을 뛰쳐나와 시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입양을 보낸 기분이 아이를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온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들이 아무렇지 않게 새출발 할까를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저도 이를 통한 후회와 죄책감이 시달리며 밤새도록 울었어요.”

지난 2005년 그녀는 ‘미혼 엄마’를 선택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미혼모’로 살면서 친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없고, 국내·외로 입양될 때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사회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다. 이후 생명을 쉽게 포기하거나, 입양 후 후회하는 이들을 돕고자 동봉서주하고 있다.

“저는 이름이 세 개입니다. ‘최형숙’, ‘준서 엄마’,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부르는 ‘미혼모’까지. 제가 미혼모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혼모가 됐고, 사회적 소수가 돼 버렸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되묻는다.

“사회는 미혼모가 무책임하다고 말해요. 미혼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미혼 엄마’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단지 미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 받고 있어요. 자신과 아이를 위해 꾀없이 사는 이들에게 비난과 동정이 아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미혼모 관련 상담전화 02-722-2451.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엠에스테크, 조선대 발전기금 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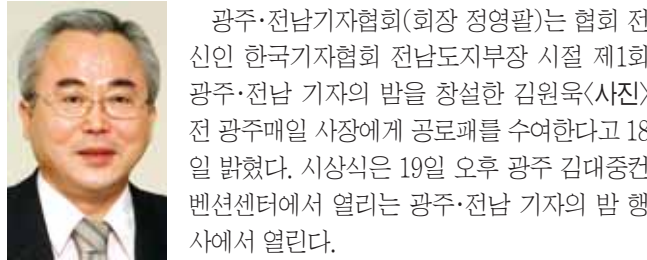
엠에스테크(주) 김홍선(오른쪽)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조선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모교인 조선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조선대 제공>

철도시설공단, 소외이웃 전기시설 안전점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김재용)는 지난 17일 소외계층 1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등을 교체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천=예정기자 yjj@

김원욱 전 광주매일 사장 기자회견 포로상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정영팔)는 협회 전신인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 시절 제1회 광주·전남 기자의 밤을 창설한 김원욱(사진) 전 광주매일 사장에 포로패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기자의 밤 행사에서 열린다.

김 전 사장은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이던 지난 1977년 4월8일 광주 YWCA 강당에서 현지 기자들의 자금을 높이고 전·현직 선후배간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역언론 최초로 ‘기자의 밤’을 제정했다. /양세열기자 hot@

출소예정자들 ‘희망 찾기’

광주교도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광주교도소(소장 최갑주)가 18일 오후 교도소내 체육관에서 ‘지혜로운 선택! 희망을 향한 질주!’라는 주제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출소예정자 30명이 지역 우수 12개 기업의 현장 채용면접을 통해 구직의 기회를 얻었다. 또 광주고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함께 참여해 취업알선, 신용회복컨설팅, 숙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교도소 측은 내년부터 연 2회에 불과했던 구인·구직의 날을 6차례로 대폭 확대해 많은 출소예정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재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취업성



공개키지,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소자분창업교육, 직업훈련(자동차정비, 정보기기기운용, 산업설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탕안전 주 광주 중국 총영사 18일 이임



탕안전(藤安年) 주 광주 중국 총영사가 18일 이임했다. 지난 2012년 8월 부임한 탕 총영사는 호남지역과 중국과의 교류, 지역민의 중국 영사 업무 편의 증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선봉인 탕 총영사는 베이징 중국 외교부로부터 복귀해 준비를 거친 후 다시 일본지역에서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열기자 halo@

한국쓰리엠 나주공장 ‘자원봉사 우수기업’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이 최근 전남도청 감대중감당에서 열린 ‘나눔 2013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추계’에서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한국쓰리엠 사회공헌단은 ‘함께하는 나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쓰리엠 사회공헌단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이화영아원과 서북지역아동센터등을 후원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한국대학생협연합 이사장에 조승제 이사장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조승제(경영학부) 이사장이 최근 국민대 본부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11년 8월 출범한 한국대학생협연합회는 조선대 대학 생활을 포함해 전국 32개 회원 대학생활의 연합조직으로 이사장 임기는 2년이다.

조승제 이사장은 “대학생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대학 발전을 이끌어내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본부, 소록도에 내의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본부장 김태백)와 직장노조 광주·전남북 본부(본부장 김민수)는 지난 17일 소록도 한센인 마을을 방문해 내의 250여벌을 전달하고 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가졌다.

광주교육청 여원회, 결식학생 후원금 50만원



광주시교육청 여직원 모임인 여원회(회장 김경애)는 지난 17일 결식학생들을 도와달라며 빛고를결식학생후원재단(이사장 최상준)에 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김영식·최영숙씨 장남 재홍(광주일보 프로젝트팀)군 정행자씨 차녀 박애진(엠코 코리아)양=22일(일) 낮 12시 20분 W컨벤션웨딩홀 9층 아모르홀 062-372-0009.
- ▲김성현(한화이글스 수석코치)·박미영씨 장남 범진군 최은대·권명숙씨 장녀 유리양=21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062-228-8000.
- ▲김관호·김재업씨 장남 효성(장원식품 대표)군 장안식·박종단씨 장녀 수정(빛고을고등학교)양=21일(토)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 벨라리오 5층 062-362-0011.

동창동문회

- ▲재호남 영주중22회 동창회(회장 한종욱) 정기총회=20일(금) 오후 6시 30분 의령소바(광주 진월동) 062-651-0084.

광주상고12회 동창회 송년모임

(회장 전성수)=22일(일) 오후 6시 전라도 땅(금남로 5가 교보빌딩 건너) 010-6643-9200(총무 정재휘)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3일(월) 오전 11시 011-605-2059.

향우회

▲재광 고흥군 향우회(회장 조웅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20일(금) 오후 6시30분 호텔 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010-9102-031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제9회 모범인 대회 모범시민·단체 대상 시상식

=20일(금) 오후 6시 광주프라다호텔 연회장 3층 062-654-9999.

대헌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과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모집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

림동 샘신희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두암동 청년회원 =두암동에서 거주하시는 참신한 청년회원을 모집 010-8542-3366(홍보국장).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원 평생교육원=특별과정 : 학·석·박사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논문작성법·해안래저 창업 과정, 자격증 : 공인중개사·웃음 운동지도사과정·어린이 북마크 지도사·피부미용사·미용성형 반사 요법·한방피부미용·타이 마사지, 교양 : 디지털사진·일본어 회화·전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클래식 음악의 이해, 수강생 수시모집 062-430-7744.

디자인 스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

=전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 최초 디자인 스텝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

부원 자원봉사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부음

▲김상희씨 별세 인수·인표(옥과면장)·동욱·원욱·병욱씨 부친상=발

인 20일(금) 옥과우리장례식장

061-362-6666.

▲김홍수씨 별세 성숙(전 광주시의원)·대중·재안·경진·성숙·성아씨 부친상=발인 19일(목) 쌍촌한국병원 장례식장 2부랑소 062-380-3444.

▲길람씨 별세 유만욱·삼욱·광욱·금욱·영욱·명욱씨 모친상=발인 19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卍</p>	
<p>401호 故이순덕 님(여/89세) 子/子婦: 유영재, 금재/윤연남, 명재, 종택/김행자 기재/장성숙 • 호 실: 401호 • 장 지: 영락공원 • 발 인: 12월 19일 • 연락처: 227-4383</p>	<p>201호 故김부사 님(남/77세) 子/子婦: 김병호/이행자, 병현/조수자, 병일/조소영 女/婦: 김경기/최명호, 정자/허재호未成人: 정복일 • 호 실: 201호 • 장 지: 고흥파역면 선영 • 발 인: 12월 19일 • 연락처: 227-4381</p>
<p>101호 故정길순 님(여/88세) 子/子婦: 선재규/송정희, 침수/김미숙 女/婦: 선기영/이명학 • 호 실: 101호 • 장 지: 영락공원 • 발 인: 12월 19일 • 연락처: 227-4385</p>	<p>102호 故재우영 님(남/54세) 子/子婦: 재용만/임미라, 용석 女/婦: 재인혜 未成人: 박중희 • 호 실: 102호 • 장 지: 영락공원 • 발 인: 12월 19일 • 연락처: 227-4386</p>
<p>미유가족회 주관 孝 김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